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현지로 출발하는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선수단 본진. 이들을 응원하는 '천사응원단' 단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 선수단 기수 이규섭

2006 도하 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 기수로 뽑힌 농구의 이규섭이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위 수성' 태극전사들 도하 입성

본진 244명 선수촌 입촌... 금메달 70개 이상 목표

정현숙 단장 "최상의 경기력 보일 수 있도록 최선"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한 '태극호'가 마침내 도하에 입성했다.

제15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 244명은 28일 오전 10시40분 대한항공 9953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발, 이날 밤 10시 10분(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다. 선수단 본진은 간단한 입국수속과 등록을 마친 뒤 대회조직위원회(DAGOC)가 마련한 버스편으로 선수촌에 입촌했다.

본진은 지난 24일 입국한 야구대표팀을 비롯해 사격, 테니스, 탁구, 조정, 카누, 요트 등 일찌감치 도하로 들어

가 마지막 담금질을 해온 선수들과 합류, 29일 오후 6시 30분 선수촌 앞 국가광장에서 입촌식을 갖고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를 준비한다.

'효자종목' 태권도를 비롯한 레슬링, 럭비, 펜싱 등 대회 후반부에 경기를 치르는 종목 선수들은 경기 일정에 맞춰 속속 선수단에 합류할 계획이다.

정현숙 선수 단장은 이날 출국 직전 기자회견에서 "결

전에 임하는 선수와 같은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목표인 종합 2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본부 임원으로서 선수들 뒷바라지를 잘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선수단 기수로 선정된 남자 농구의 이규섭(삼성)은 "개·폐회식에서 남북이 공동입장하는 뜻깊은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면서 "선수들이 시

즌 중에 소집된 게 다소 걸리지만 경향도 많고 준비도 철저지 해온 만큼 2002년에 이어 한국 남자 농구가 다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시 농구 대표팀 김승현(오리온스)도 "2002년 우승을 재현하고 돌아오겠다"면서 "중동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조별 리그에서 좋은 경기를 하면 결승까지는 무난히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수영의 기대주 박태환(경기고)은 "남은 시간 더욱 잘 준비해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오겠다. 컨디션은 좋다. 다소 부담은 있지만 3관왕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빛 각오'를 전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체스와 카바디를 제외한 37개 종목에서 선수, 임원 832명이 참가, 70개를 뚫는 금메달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 2위를 지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칼리파 스타디움 '육상기록의 산실'

'세계기록, 한국기록 모두 바라볼 만 하다'

다음 달 7일부터 12일까지 도하 아시안게임 육상 경기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 시내 칼리파 스타디움이 '기록의 산실' 역할을 해낼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개·폐회식과 육상 트랙·필드 경기만 열리는 이 스타디움에서는 지난 5월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이 작성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 미국의 스프린터 저스틴 게이틀린은 이 곳에서 열린 그랑프리 100m 레이스에서 9초76을 전광판에 찍었다.

경기장 내 바람 영향 최소화

지난 5월 100m 세계신 나와

아사파 파월(자메이카)의 세계기록을 100분의 1초 앞당긴 세계 신기록이었다. 그러나 사흘 뒤 이 기록은 9초766으로 관망되면서 '계측 오류'라는 사실이 밝혀져 9초77로 수정됐다.

게이틀린이 트랙을 주파할 당시 바람은 초속 1.7m로 기록 인정기준(초속 2m) 이하였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레이스를 방해할 것 같았지만 특수 코팅된 직물 지붕으로 스타디움을 둘러싸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칼리파 스타디움은 1976년에 건립됐지만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지난 해 경기장 전체를 리모델링했다.

관중석을 2만에서 5만석으로 늘렸고 원래 없던 지붕을 씌웠다. 트랙도 탄성이 좋은 소재로 새롭게 단장했다.

기후도 기록을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하는 낮 기온 28~29℃로 여전히 더운 편이다. 육상 단거리의 마라톤 등 장거리와는 달리 기온이 25℃ 이상일 때 신기록이 많이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손민한 이냐, 류현진 이냐"

내일 대만전 선발투수 관심 집중

'관록의 손민한(롯데·왼쪽)이냐, 돌풍의 류현진(한화·오른쪽)이냐' 한국야구가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사령탑 김재박 감독의 승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대만과 결승전이나 다름 없는 풀리드 1차전을 벌이는 김 감독은 "무조건 총력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선발 투수 및 선발 라인업의 윤곽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큰 경기에서 경험을 중시하는 김 감독의 특성상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이 선발의 중책을 떠안을 가능성이 짙다.

이미 대만과 일본의 전력 분석을 마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광권, 우용득 전력분석위원은 손민한을 적임자로 꼽았다.

145km대 빠른 볼은 물론 스트라이크 내외곽에 걸쳐

는 질묘한 제구력, 스윙이 큰 대만 타자에게 쓴 맛을 안길 체인지업 등이 탁월하기에 '손민한 카드'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감독이 대만전에서 볼펜 투수를 모두 쏟아 붓는 총력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베테랑 손민한이 5이닝 이상 끌어준다면 마운드 운용에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감독은 "볼펜 투수들의 경험이 부족한 게 흠"이라며 아직 미덥지 못한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신뢰할 만한 카드로는 신철인, 장원삼(이상 현대)과 마무리 오승환(삼성)이 꼽힌다.

여기에 투수 3관왕을 차지한 국내프로야구 최우수 선수 류현진이 필승 계투로 등판해 힘을 보탠다면 한국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만이 우타자 일색인 만큼 결정적인 순간 원 포인트 릴리프로 마운드에 올라 린웨이추(한신), 장지엔밍(신농), 세자센(성타이) 등 좌타자들을 한 번만 막아준다고 해도 한국 마운드는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도하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DAGOC)가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참가 선수들에게 '도핑 주의보'를 발령했다.

DAGOC는 27일(현지시간) 메인미디어센터(MMC)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금지약물 반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 DAGOC가 계획중인 약물검사 횟수는 1천200회 이상이다. 4년 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860여 회보다도 무려 40% 이상 증가된 횟수다.

'도핑 주의보' 발령...약물검사 1,200여회 계획

특히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혈액채취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때 전면 혈액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는 소변검사만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소변검사는 첨단 개발된 금지약물을 가려내지 못해 혈액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DAGOC는 과거 약물검사를 임상자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경기 전에 무작위로 선수를 지명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